

CONTENTS

본교재와 해설지 모두 맨 뒤쪽에는 '빠른 정답'이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기 전 채점을 하고 싶으시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권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생각의 시작

Day 1

교재의 사용법	012P
국어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 : '생각'합니다.	019P
필연성, '생각'의 시작	022P
글 읽기의 시작 - 어휘력	025P
수능 문학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을 요구한다.	028P
선지 판단의 대원칙 :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029P

Day 2

문학 개념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042P
-------------------	------

Day 3

현대시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064P
-----------------------	------

생각의 전개

Day 4~Day 12

시와 수필 : 운문문학은 주제 중심으로 해결한다.	074P
-----------------------------	------

Day 13~Day 22

소설과 극문학 : 산문문학을 통해 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한다.	126P
-----------------------------------	------

2권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생각의 확장

Day 23~Day 25

고전시가의 세계관은 단순하다.

Day 26~Day 28

고전소설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이다.

Day 29~Day 30

현대소설은 암울한 현대사를 반영한다.

Day 31~Day 34

현대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Day 35~Day 38

실전 문제풀이 연습

Day 39~Day 40

생각의 틀 총정리
2026학년도 수능

교재를 마무리한 후

지문 목차 _ 문학편

복습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문의 목차를 정리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예시로 들었던 지문을 제외하고, 한 지문 단위로 공부해보았던 지문만 정리했습니다.

1권

생각의 시작

Day 2 선지 판단의 대원칙 :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2011.06 [19~22] 현대시 '강우'	036P
2018.06 [26~29] 현대시 '결빙의 아버지'	037P
2013.06 [13~18] 현대시 '알 수 없어요'	038P
2017.06 [34~38] 현대시 '향현'	039P
2023.06 [32~34] 현대시 '향아'	040P
2015.09A [34~37] 극문학 '안개'	041P

생각의 전개

Day 4~Day 12 시와 수필 : 운문문학은 주제 중심으로 해결한다.

2015.11B [43~45] 현대시 '고향 앞에서 / 낡은 집'	078P
2020.11 [43~45] 현대시 '바람이 불어 / 새'	080P
2019.11 [43~45] 고전시가 '일동장유가'	082P
2023.09 [22~27] 현대시+수필 '별 - 금강산시 3 / 길 / 편지'	084P
2019.06 [27~31] 현대시+수필 '휴전선 / 우포늪 왓새 / 주을온천행'	087P
2025.11 [22~27] 현대시+수필 '배를 밀며 / 혼자 가는 먼 집 /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090P
2025.06 [22~26] 고전시가+수필 '우부가 / 타농설'	093P
2022.11 [18~23] 현대시+수필 '초가 / 거산호 2 / 담초'	096P
2024.11 [32~34] 고전시가 '일동장유가 / 화암구곡'	100P
2022.09 [28~31] 현대시 '종가 / 노래와 이야기'	102P
2021.12 [38~42] 고전시가+수필 '사미인곡 / 창 밖기 워석버석~ /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104P
2024.06 [31~34] 현대시 '맹세 / 봄'	108P
2022.11 [32~34] 고전시가 '탄궁가 / 농가'	110P
2011.11 [13~16] 현대시 '자화상 / 선제리 아낙네들 / 그 나무'	112P
2021.09 [38~42] 고전시가+수필 '만흥 / 우언'	114P
2024.09 [22~27] 현대시+수필 '월흔 / 연 1 / 문의당기'	116P
2026.09 [27~30] 고전시가 '화전가 / 공명을 헤아리니~ / 석문가'	120P
2010.11 [32~37] 현대시+고전시가 '승무 / 지리산 뱀꼭새 / 면앙정가'	122P

Day 13~Day 22 소설과 극문학 : 산문문학을 통해 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한다.

2018.09 [43~45] 현대소설 '눈이 오면'	134P
2023.09 [28~31] 현대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5'	136P
2020.09 [32~34] 고전소설 '장끼전'	138P
2008.09 [40~43] 현대소설 '날개'	140P

2019.09 [39~41] 극문학 '공동 경비 구역 JSA'	142P
2021.12 [22~25] 현대소설 '사막을 건너는 법'	144P
2020.06 [16~18] 현대소설 '토지'	146P
2014.11B [35~37] 현대소설 '소문의 벽'	148P
2020.11 [33~36] 고전소설 '유씨삼대록'	150P
2012.11 [37~39] 극문학 '산허구리'	152P
2017.06 [39~42] 현대소설 '삼대'	154P
2013.09 [47~50] 현대소설 '역마'	156P
2024.09 [28~31] 현대소설 '원미동 시인'	158P
2022.06 [18~21] 현대소설 '무사와 악사'	160P
2022예시 [26~29] 현대소설 '무정'	162P
2024.09 [18~21] 고전소설 '숙영낭자전'	166P
2023.06 [28~31] 현대소설 '미스터 방'	168P
2026.09 [31~34] 현대소설 '두 출발'	170P
2024.06 [27~30] 현대소설 '무성격자'	174P
2017LEET [7~10] 현대소설 '가면의 꿈'	176P

2권

생각의 확장

Day 23~Day 25 고전시가의 세계관은 단순하다.

2020.06 [32~36] 고전시가+수필 '유원십이곡 / 조용'
2019.09 [16~20] 고전시가+현대시 '한거십팔곡 / 추억에서'
2020.09 [16~20] 고전시가 '상춘곡 / 고산구곡가'
2022.09 [32~34] 고전시가 '규원가 / 재 위에 우뚝 선~'
2019.06 [32~34] 고전시가 '서경별곡 / 만분가'
2015.06B [43~45] 고전시가 '도산십이곡'
2023.11 [22~26] 고전시가+수필 '도산십이곡 / 지수정가 / 겸재의 빛'
2015.11B [31~34] 고전시가 '관동별곡 / 유한라산기'

Day 26~Day 28 고전소설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이다.

2022예시 [11~15] 고전소설 '박씨전 / 조보'
2023.09 [18~21] 고전소설 '정수정전'
2024.11 [18~21] 고전소설 '김원전'
2025.11 [18~21] 고전소설 '정을선전'
2022.11 [28~31] 고전소설 '박태보전'
2017.06 [43~45] 고전소설 '최척전'
2022.06 [28~31] 고전소설 '채봉감별곡'
2017.09 [40~45] 고전소설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

Day 29~Day 30 현대소설은 암울한 현대사를 반영한다.

2016.09B [39~41] 현대소설 '옛우물'
2019.09 [42~45] 현대소설 '비 오는 길'
2021.09 [16~19] 현대소설 '고향'
2016.09A [39~42] 현대소설 '잔등'
2019.11 [21~26] 현대소설+극문학 '천변풍경 / 오발탄'

Day 31~Day 34 현대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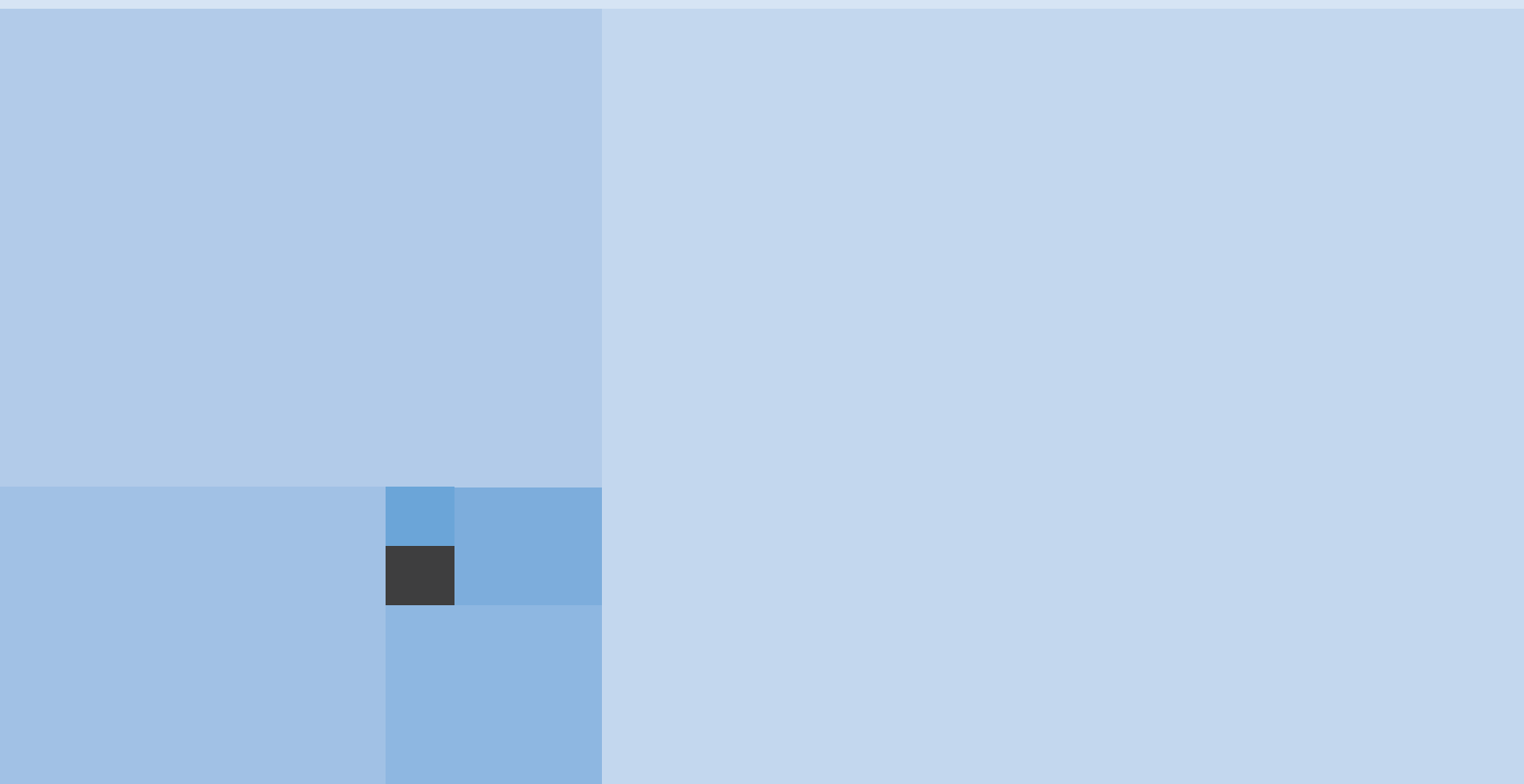
2019.11 [33~35] 현대시 '출생기 /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2017.09 [19~20] 현대시 '병원 / 나무'
2013.09 [27~30] 현대시 '또 다른 고향 / 자화상 · 2 / 멀치'
2020.06 [43~45] 현대시 '추일서정 / 하늘과 돌맹이'
2026.09 [22~26] 현대시+수필 '경사 / 달빛 체질 / 용연사기'
2025.09 [22~27] 현대시+수필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 / 이문원노종기'

2018.11 [20~22] 현대시 '강 건너간 노래 / 묘비명'
2017.11 [27~32] 현대시+극문학 '구름의 파수병 / 느낌, 극락같은'

Day 35~Day 38 실전 문제풀이

2026.06 [27~30] 고전소설 '김진옥전'
2024.06 [22~26] 고전시가+수필 '한겨십팔곡 / 기취서행'
2025.06 [27~30] 현대소설 '아버지의 땅'
2022.06 [32~34] 현대시 '연륜 / 대장간의 유혹'
2021.12 [31~33] 고전소설 '최고운전'
2025.06 [31~34] 현대시 '청산행 / 사실과 관습 : 고독 이후'
2025.11 [28~31] 현대소설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2024.09 [32~34] 고전시가 '성산별곡 /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2025.06 [18~21] 고전소설 '이대봉전'
2022예시 [22~25] 고전시가 '개와 관련된 시조'
2024.11 [28~31] 현대소설 '골목 안'
2026.06 [31~34] 현대시 '살구꽃과 한때 / 역사'
2023.06 [18~21] 고전소설 '소현성록'
2024.11 [22~27] 현대시+수필 '문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잊음을 논함'
2025.09 [28~31] 현대소설 '날개 또는 수갑'
2023.09 [32~34] 고전시가 '어부단가 / 소유정가'

P . I . R . A . M



1

PART

생각의 시작 〈Day 1~Day 3〉

이 교재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며 의지를 다진 뒤, 기본적인 선지 판단의 태도를 배우고 ‘문학 개념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문학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정립하는 파트입니다. 나아가 현대시 독해 연습을 통해 문학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적용해 볼 것입니다. 딱 3일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어 공부에서 든든한 초석이 될 이 사흘을 착실하게 보내봅시다.

“P.I.R.A.M 국어”와 함께 하는 국어 공부의 첫날입니다. 먼저 이 교재의 사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적힌 내용들을 읽고 정리하는 것도 ‘글 읽기 경험’입니다. 정말 국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보도록 합시다.

교재의 사용법

완벽한 국어영역 독학서, “P.I.R.A.M 국어”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나 수능 국어 공부를 위한 보편적 커리큘럼의 일부가 된 이 교재. 도대체 어떻게 이용해야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P.I.R.A.M 국어”는 하나의 시리즈로 여러분의 국어 공부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 글을 읽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가장 정석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학습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재는 ‘Daily’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0. For 2027 “P.I.R.A.M 국어” 시리즈 표준 커리큘럼

단계	기반 닦기	A to Z	EBS 학습	고난도 독서	마지막 정리	기출문제 학습
독서	생각의 발단	생각의 전개		생각의 절정	생각의 결말	10개년 기출문제집
문학	필수 고전시가	생각 워크북	생각의 위기:기회		(전자책)	옛기출 선별집

시기	~1월 말	~4월 말	~6월 모의평가	~여름방학	~10월 말	~수능
커리큘럼	생각의 발단 + 필수 고전시가	생각의 전개 + 생각 워크북	생각의 전개 + 생각 워크북 (2회독)	10개년 기출문제집 + 옛기출 선별집 + 생각의 위기:기회	10개년 기출문제집 + 옛기출 선별집 + 생각의 절정	생각의 결말

2027학년도 수능 대비 ‘P.I.R.A.M 국어’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표준 커리큘럼으로 제공됩니다. 본인의 실력,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하여 나만의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보세요. 각 단계의 대략적인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반 닦기

먼저 ‘생각의 발단’의 경우, ‘생각의 전개 독서편’ 초반부 내용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 태도를 설정하고, ‘문장→문단→지문’의 순서로 사고력을 확장시켜나가는 단계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국어를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생각’하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교재입니다. 공부를 거의 처음 시작하는 노베이스라면 꼼꼼하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속도를 내면서 가볍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 교재를 봐야 하는 수준인지 궁금하다면, ‘생각의 전개 독서편’ 교재의 초반 4일차를 먼저 진행해보세요. 아무런 무리없이 이해가 되고 글이 읽힌다면 계속 ‘생각의 전개’를 보시면 되고, 조금 어렵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생각의 발단’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고전시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필수 고전시가’ 교재가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 대비를 열심히 했고, 따라서 대부분의 필수적인 고전시가들이 공부가 된 학생들이라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교재입니다. 하지만 고전시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고전시가를 정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꼭 먼저 공부해 주세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필수적인 고전시가의 정리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A to Z

말 그대로 수능 국어의 A부터 Z까지 모두 다루는, ‘P.I.R.A.M 국어’ 시리즈의 메인 커리큘럼입니다. ‘생각의 전개’ 시리즈의 경우, 교재의 이름처럼 국어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전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교재입니다. 테마를 정해 각 테마별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정립하고, 평가원 기출문제 위주로 그 태도를 연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어 영역에 필요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 평가원 기출문제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정리하는 경험을하실 수 있습니다. ‘A to Z’라는 이름답게 꽤 많은 분량을 자랑하며, 이에 따라 1권/2권 두 권으로 나눠 출판됩니다. 두 교재는 내용이 연결되는 하나의 교재이니, ‘생각의 전개’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두 권 모두 구입해 주세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생각 워크북’의 경우, ‘생각의 전개’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요 평가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습을 해보는 교재입니다. 교재 이름처럼 ‘생각의 전개’의 워크북 역할을 하며,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더 탄탄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생각의 전개’와 ‘생각 워크북’을 모두 공부하시면, 10개년 기출문제 전문향을 포함해 19개년 기출문제 주요 문항을 공부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기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EBS 학습

문학 EBS를 가장 ‘수능답게’ 정복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작품 분석·주제 및 줄거리 정리 등이 아니라, ‘생각의 전개’에서 배운 내용을 문학 EBS 작품들을 통해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입니다. 지루하게 달달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EBS 연계를 가장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단순하고 지루한 EBS 지문 공부로 인해 상반기에 공들여 쌓아 놓은 ‘생각의 힘’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생각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드리는 교재가 바로 ‘생각의 위기:기회’입니다.

고난도 독서

다시 찾아온 불독서의 시대. 우리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의 절정’ 교재는 엄선된 LEET언어이해 교재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절정’으로 이끌어주는 교재입니다. 시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깔끔한 LEET언어이해 해설지를 통해 압도적인 독서 실력을 만들어드립니다.

마지막 정리

파이널 기간은 새로운 것을 쌓는 기간이 아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생각의 결말’ 교재는 전자책으로 무료 배포될 예정이며, 반드시 아름다울 우리 생각의 ‘결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입니다. 당해 모의평가 해설지 / 분석서를 비롯,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마지막 기출, 수능 직전 이용할 예열 자료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수능 당일 아침까지, 여러분의 ‘생각’은 피램이 에스코트합니다.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 분석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수능의 그날까지, 지겹도록 반복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 과정을 돕기 위해 ‘P.I.R.A.M 국어’ 시리즈는 ‘10개년 기출문제집’과 ‘옛기출 선별집’을 준비했습니다. 교재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우직하게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수능 국어 만점도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입니다.

1. 누구를 위한 교재인가요?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는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중 최소한의 문장 독해력과 어휘력이 갖춰진 ‘4~5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다만 문학편의 경우, 공부를 아예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아닌, 각 시기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간략한 가이드라인이니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시기	사용법
9월 이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문학을 원래부터 이 교재의 내용과 비슷하게 푸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전자의 경우엔 이 교재의 설명을 빠르게 읽고, 해설지를 통해 사고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학은 단순히 다 맞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다 맞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교재의 내용은 그 ‘속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용이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기에, 시키는 대로 조금만 따라하시면 확실한 실력 상승이 있을 겁니다.
9월 이후	역시 9월 이전의 학생들과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속도를 내주세요. 너무 빠른 파트라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평가원 기출문제에 끊임없이 연습해주세요. 문학은 평가원 기출문제만 제대로 공부해도 실력이 완성됩니다. 수능 직전까지 모든 문제를 실전적인 방식으로 해설할 수 있을 정도로 봐 주세요.

일상에서의 의미 그대로 이해한다.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문학 개념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근 5개년 기출 선지들을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들은 우리가 흔히 ‘문학 개념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사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해당 단어의 의미 그대로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2022.06)

→ 말 그대로 ‘교훈적’인 의미가 있으면 됩니다.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느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주제 의식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2022.06)

→ ‘얼마나 급박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학에서만 사용하는 ‘급박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기에 급박하다면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급박하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급박하지 않은 상황은 절대 이 선지의 근거로 제시될 수 없을 것이니까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런 선지는 결국 ‘화자or서술자의 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화자나 서술자가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시간의 급박한 흐름’이 드러나게끔 서술할 것이니까요.

- ①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2022.09)

- ①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으로 서술하며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2026.06)

- ③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혼용하여 특정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026.09)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개성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2022.09)

- ①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2025.11)

-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2026.06)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2022.11)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2022.11)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22.11)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2022.11)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022.11)

→ ‘직접/간접 인용’, ‘외양 묘사’, ‘개성적’, ‘회의’, ‘무상감’, ‘낙관적’, ‘병치’, ‘대등하게 나열’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몰랐다면 꼭 그 뜻을 찾아 보세요. 그 의미 그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23.06)

→ 역시 ‘입체적’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느낌’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이 선지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했다면, 과거와 현재라는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니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2023.06)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026.06)

→ ‘병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립적인 사건들이 나란히 늘어설 때, ‘병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023.06)

→ ‘초월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문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현실적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023.06)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2024.11)
- ②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026.06)
- ‘관망’은 ‘관조’와 비슷한 의미로, 어떠한 자아가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세계에 자아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은 채 지켜보기만 할 때 허용되는 개념인 것이죠.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문학은 기본적으로 자아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망’이나 ‘관조’가 포함된 선지는 적절한 선지가 되기 매우 어려워요.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2023.06)
-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2025.11)
- 시는 일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연주한다’는 의미의 ‘변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것이에요. 즉, ‘변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시구의 ‘변화’가 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위 선지들처럼 ‘반복과 변주’라는 표현으로 세트처럼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2023.06)
- 말 그대로 ‘시적/청자’입니다. 시 속에 있는 ‘청자’인 것이에요. 실제로 누군가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화자가 설정한 ‘청자’가 있으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2023.09)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2023.09)
- ‘예스럽다’, ‘고풍스럽다’, ‘인과 관계’, ‘재구성’ 등의 단어는 당연히 알고 있죠?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2023.09)
- 단어의 의미 그대로,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선지가 말하는 것처럼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면, 해당 사건으로 ‘서술’의 ‘초점’이 ‘집중’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선지는 지문 내용과 무관하게 무조건 틀린 선지입니다. 이렇게 ‘선지 내 논리’에 문제가 있어 지문 내용과 무관하게 무조건 틀린 선지들이 가끔 등장하니 알아둬시다.
- ④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2023.11)
- 앞에서 봤던 ‘시간의 급박한 흐름’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낭만적’이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자나 서술자의 심리가 ‘낭만적 분위기’에 어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 ③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 주고 있다. (2023.11)
- 역시 ‘관용’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 ①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2024.06)
- ‘표지’(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면, ‘시간’을 드러내는 ‘표시’나 ‘특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 ‘2시간 뒤’, ‘이틀 전’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하죠.
- ① [A]는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2024.06)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2025.11)
- 말 그대로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차고 활발해야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임’만 있으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2024.09)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2024.11)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2025.09)
-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보면 '대화체', '대화적 어조', '대화적 구성' 등의 개념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마다 헛갈리게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의 의미 그대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요체'를 사용하거나, 누군가를 부르거나 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2026.06)
- ④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26.09)
- 한편, 말이나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라면 당연하게도 상대방의 '대답'까지 필요하겠죠? 이렇게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2025.11)
-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하강'하는 '이미지'가 있는지 찾으면 됩니다. '떨어지다', '기울다', '해가 진다'와 같은 표현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 ③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026.09)
- '냉소적 태도'는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비웃는 느낌까지 있으면 허용되는 것이겠죠?

이 설명들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납득'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외워봤자 나중에 또 만나면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외우지 말고 '납득'하세요. 정말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 그대로 파악하면 된다는 것을 계속 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용어의 의미에 대한 합의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 그대로 파악하면 되지만, 몇 가지 용어들은 조금 정확하게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재의 해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몇몇 용어들의 의미는 확실하게 합의해두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최근 5개년 기출 선지들을 바탕으로 공부해보겠습니다.

화자

먼저 예시를 들 필요도 없이 정말 많은 선지들에 등장하는 ‘화자’에 대해 이해해봅시다. ‘화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화자’는 ‘시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는, 아니 사실 ‘문학’은 작가의 감정이나 정서를 드러낸 작품을 의미합니다. 이때 작가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도 하고, 누군가를 내세우기도 하면서 감정이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때 앞으로 나서는 주체를 ‘화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시 속에서 감정이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 혹은 제3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니,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한편, 흔히 ‘수필’이라고 부르는 ‘교술’ 장르에서는 작가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수필에서는 ‘화자’라는 표현 대신 ‘글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서술자

시에 ‘화자’가 있다면,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자’와 그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서술자’ 역시 ‘화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시에 비해 ‘서술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화자’ 대신 ‘서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022.06)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022.06)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2022.06)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2022.06)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2022.06)
- ②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2026.09)

그런데, 이 선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있을 수도, ‘이야기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설 속 이야기 내부에 있는 누군가를 ‘서술자’로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죠. 한편 후자의 경우, 말 그대로 소설 속 이야기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서술자’인 경우입니다. 시의 작가가 직접 나서서 ‘화자’가 되는 것처럼, 소설의 작가가 직접 나서서 ‘서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술자가 이야기 내부에 있는지/외부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시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 | | |
|-----|---|--|
| 1인칭 | ┌ | 주인공 : 서술자가 주인공.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소설이 ‘나’의 심리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 |
| 시점 | | 관찰자 : 서술자가 주변 인물.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나’가 <u>심리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u> 다른 인물을 관찰하기만 함 |
| 3인칭 | ┌ | 관찰자 :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 관찰만 할 수 있어서 <u>인물들의 심리 상태, 그 이유 등을 잘 알지 못함</u> . |
| 시점 | | 전지적 :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 전지전능하므로 <u>모든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이유 등을 알고 있음</u> . |

오늘은 산문문학을 독해하고 해결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워 볼 것입니다. 길고 긴 소설 지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설과 극문학 : 산문문학을 통해 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한다.

우리는 소설을 왜 배울까요? 소설을 비롯한 문학을 배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 향상’입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전쟁 · 독재 · 빈곤 등 우리가 쉽게 겪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는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물의 삶에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그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서, ‘저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설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 그대로죠? 운문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양이 많아 인물 각각의 내면세계에게 공감할 만한 단서가 많은 산문문학에서는 이 ‘공감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소설 문제 역시 인물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물론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대로 ‘독해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인물이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즉 어떤 이유로 그러한 ‘내면세계’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공감’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도 이에 맞춰 지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소설에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는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된 상태에서는 문제풀이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문문학 문제풀이 시간을 줄여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물에 대한 공감’이라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하며 읽는 연습을 할 겁니다.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이면서 인물에게 ‘공감’하는 데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지문을 ‘최대한 한 번만’ 읽고, 그것을 토대로 선지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할 겁니다. 물론 정말로 한 번만 읽고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인트들에는

1. 인물의 심리/행동/발화의 근거
2. 인물관계
3. 시간/공간(변화)
4. 배경/외양 묘사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체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히 정리해봅시다.

먼저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행동/발화’는 시에서 화자의 ‘반응’이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인물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공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때 각각의 인물들이 단순히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도대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게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인물관계’ 및 ‘시/공간적 배경’ 등은 모두 인물의 심리와 행동에 ‘명분’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시험장에서 소설이 잘 읽히지 않을 때는 하나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애가 왜 이러지?” 이를 생각하며 읽는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시험장에서도 각 인물들에게 깊게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내면, 그 자체가 바로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소설을 읽는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되어야 해요. 전문을 신지 않는 수준의 특성상, 전체적인 줄거리 파악보다는 각 장면마다 인물에게 ‘공감’할 수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행동/발화 및 그 근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인물관계는 소설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설은 ‘여러 인물들의 상호작용’을 그려내는 것이고, 각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각 인물에게 ‘공감’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내용이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나와 가까운 사이의 친구가 하는 것과 원수같은 친구가 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설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심리나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이 부분을 캐치해야 각 인물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물관계를 체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인물에게 ‘공감’하는 데 있어 인물관계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공간은 소설을 이루는 세계, 즉 일종의 ‘상황’입니다. 시에서 화자의 상황이 중요하듯이, 소설에서도 그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지, 현재 있는 공간이 그 인물에게 편한 곳인지 아닌지와 같은 요소들도 인물의 내면세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특히 시간이 거꾸로 가거나, 뒤죽박죽 이어지거나 하는 ‘시간의 변화’, 또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넘어간다거나 인물이 계속해서 이동하며 공간을 바꾸는 경우 등의 ‘공간의 변화’는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출제 요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변화’는 특이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시간/공간 역시 인물에게 ‘공감’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외양 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배경 묘사의 경우, ‘인물의 심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에 오는 비와 기분이 더러운 날에 오는 비는 완전히 다르게 묘사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인물의 심리뿐 아니라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배경 묘사에 반영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면 평화롭게, 긴박한 분위기면 긴박하게 묘사된다는 것이에요. 범죄 영화의 마지막 길고 긴 액션씬에선 항상 비가 오잖아요? 또 로맨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첫키스를 하는 날은 보통 눈이 부시도록 맑은 날이구요. 이처럼 ‘인물의 심리’ 혹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으니 ‘배경 묘사’가 나오면 어떤 심리, 혹은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인지 신경 쓰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는 또 ‘인물’에게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니까요.

외양 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물의 성격’과 직결되는 정보이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흥부와 놀부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겠죠. 애초에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흥부와 놀부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부는 둥그런 얼굴에 인자한 눈매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놀부는 주걱턱에 뾰족한 눈썹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아요. 왜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일까요? 그렇죠. 많은 서술자들이 인물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외양을 묘사해왔기 때문이에요! 바보같고 착한 이미지인 흥부는 둥글둥글하게, 동생조차 외면하는 나쁜 이미지로 그려지는 놀부는 뾰족하고 날카롭게! 이해되지요? 이렇게 ‘외양 묘사’가 나오는 경우 그 묘사를 체크하면서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이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고 싶은 걸까?” 이 생각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잡고 간다면, 역시 ‘인물’의 심리나 행위에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그 인물에게 ‘공감’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겠죠?

물론 이것 외에도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의 포인트들만 인식하면서 지문을 읽어준다면 적어도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 이게 소설의 전부니까요! 저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며, 각 선지들의 허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소설 지문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들을 찾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이 포인트들은 어떠한 스킬 같은 것이 아닌, 소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 포인트들을 체크하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	4%	81%	7%

35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수필 지문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결국 정답은 ‘주제’와 직결되었네요. ‘하늘은 다 똑같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다르게 본다.’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선지를 판단해봅시다.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쓰임새를 강조한 적이 없는데?
해설	애초에 ‘공교함과 졸렬함’에는 ‘다른 헤아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들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아가 꽃의 ‘쓰임새’를 강조한 부분 자체가 없으니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 (중략)...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 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 요황과 위자 :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귀함과 천함 따지지 말자는 게 주제 아니었어?
해설	화자는 ‘귀함’과 ‘천함’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해하면서 여러 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이야기도 하는데, 이때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의 표현대로라면 ‘범상’한 화초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다면, 실전에선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이라며.
해설	지문에 적혀 있는 말을 정확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지문에 있는 말 그대로이기도 하면서, ‘하늘’은 다 똑같이 만들었다는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와 반대되네.
해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기에 ‘균형’을 도모하지 못하고 자꾸 우열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지문의 주제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7%	4%	21%	26%	2%

36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한 폭 종이 쳐.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 ‘묵화’는 ‘고향’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 ‘북창’은 ‘산’과 마주하게 해 주는 요소입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한 폭 종이 쳐.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중략)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묵화’와 ‘박쥐 나래’ 모두 어두운 색의 대상들이기에, 이러한 이미지들을 연결하면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이 모든 모습들이 ‘고향’의 분위기를 드러낸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죠? ‘고향’을 ‘어두운 분위기’로 묘사하는 것은 이 지문의 주제니까요.

한편, (나)에서 ‘북창’을 통해 바라보는 ‘산의 품’에 주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 지문의 주제 그 자체니까요.

FAQ

Q (가)에서 ‘박쥐 나래’는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는 공간에서 인식한 대상 아닌가요? 이게 왜 고향의 분위기와 연관되나요?

A 화자는 ‘산기슭’에서 ‘박쥐 나래’ 밑에 밑에 황혼이 묻혀 오고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는 시간에 고향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박쥐 나래’가 고향을 떠올리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박쥐 나래’, 저녁과 같은 어두운 분위기 속에 있으니 고향을 그린 ‘묵화’(묵으로 그린 그림=어두운 그림)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독해의 결과를 근거로 하면 ‘박쥐 나래’ 역시 고향의 분위기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죠.

② (가)에서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한 폭 종이 쳐.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승의 밤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 헛소리네.
해설	일단 ‘묵화’가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대응된다는 건 억지로나마 허용할 수 있습니다. ‘황혼’으로부터 떠올리고 있는 ‘고향의 모습’은 실제 화자가 경험했던 현실의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승의 밤’이 ‘절망적 상황’을 의미한다는 건 지문의 주제와 정반대로 대치되는 내용이지요? ‘저승의 밤’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산’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뿐, ‘저승’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어요.

③ (가)에서 ‘묵화’에 ‘좁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좁이 쳐.

오늘, 북창을 열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의 화자는 산을 원래부터 좋아했잖아.
해설	일단 ‘묵화’에 ‘좁이 쳐’라고 한 것은 ‘세월의 깊이’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이 치다’라는 표현은 시간이 오래 지나 좀벌레가 생길 정도임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북창’을 ‘오늘’ 여는 것이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 변화라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화자는 ‘본시’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냈으니까요. 이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애초에 ‘산’을 이제야 좋아하게 되었다는 건 주제에 어긋나므로 과감하게 지워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④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좁이 쳐.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산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해설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 ‘분절된 이미지’를 허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나)의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어요.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창문

밖의 풍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산’이 있는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건 주제와도 어긋나구요. 허용하기 어렵네요.

⑤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옥이 도대체 왜 안타까워.
해설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담았다는 건 근처 맥락을 통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지만,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았다는 건 도저히 허용하기 어렵죠? ‘보옥’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산’을 예찬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5%	15%	41%	37%

3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보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표현 대상을 다른 관념이나 사물에 비유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지 기대하면서 선지를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황혼이 묻힐 때 호롱불을 켜고 있네.
해설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진다고 했습니다. ‘황혼’은 저녁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롱불’을 바탕으로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는 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앞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뗏목 타고 항구로 흘러가는 건 불안정하지.
해설	‘젊은이’는 ‘뗏목’을 타고 돈을 벌러 ‘항구’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서릿발’이 지는 초겨울이 되어도 ‘못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야 하고, 몇 달 동안 돌아오지도 못하는 모습을 근거로 하면 ‘삶의 불안정함’을 허용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오늘, 복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산을 바라보려면 세속적인 공간을 등져야지.
해설	화자는 ‘산’을 향하여 앉기 위해 ‘장거리’를 등집니다. 이렇게 보면 ‘장거리’는 ‘자연’과 반대되는 공간이기에, 이곳을 ‘세속적인 삶의 공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한 곳은 ‘맨날 변해 쌓’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해의 결과를 근거로 하면,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대체 저곳이 왜 적막한데?
해설	<p>‘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이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나타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적막’하다는 것을 허용할 만한 근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허용하려면 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시어가 필요할 텐데 말이죠. 근거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겠네요. ‘부잣집은 조용하지 않을까요?’와 같은 뇌피셜을 개입해서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 속에서 ‘적막한 분위기’(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쓸쓸’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에 적용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해요.</p> <p>그리고 정말 억지로 ‘적막한 분위기’ 같은 걸 허용하려고 한다 쳐도, 애초에 ‘적막한 분위기’는 (다)의 주제(글쓴이의 생각)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의 글쓴이는 귀하게 여겨지는 풀과 그렇지 않은 풀의 차이를 생각하고 있을 뿐, 굳이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내려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p>

| 생각 심화 |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더욱 확실한 근거를 잡아봅시다. 일단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은 ‘귀함’에 대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과 가까운 공간’은 ‘뜨락’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뜨락’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인간과의 거리’가 꽃의 귀천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인지 생각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 기억하시죠? 결국 이 지문에서는,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을 바탕으로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막한 분위기든 즐거운 분위기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인간과의 거리’는 ‘뜨락’이나 ‘교외’라는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귀한 대우를 받는 삶과 천한 대우를 받는 삶을 본 글쓴이는 ‘이 어찌 된 일인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뜨락/교외’, ‘요항과 위자/범상한 화초’, ‘뿌리가 깊은 것/뺨뺨이 늘어선 것’ 등을 비교하며 여러 의견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견들은 ‘아니면’, ‘그도 아니면’이라는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글쓴이가 보기 에 이 의견 중 무엇이 답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결국 이견 다 인간이 만든 무의미한 기준이 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뜨락’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과 대응되는 예시로 제시된 것이 맞습니다. 즉,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것은 ‘뜨락’처럼 사람과 가깝기 때문에 대우받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것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바로 뒤에 ‘아니면 요항과 위자는~’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뜨락’과 관련된 생각이 맞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을 ‘뜨락’처럼 ‘인간과 가까운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인간과 가까운 공간’ 부분 역시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쉽지 않네요. 어쨌든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적막한 분위기’라는 임팩트 있는 단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선지 속 ‘인간과 가까운 공간’을 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특정 단어에 매몰되지 않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 실전에서 여러분이 몇 점을 더 맞게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소한테 먹히는 건 하찮고 나비가 찾는 건 귀하다고 할 수 있지.
해설	<p>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풀은 그저 ‘여물’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하찮게 취급되는 풀’이라고 할 수 있고, ‘나비’가 다투어 찾는 풀은 향기가 좋다는 의미이므로 ‘귀하게 여겨지는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p> <p>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지문의 주제를 생각하면 쉽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하찮음’과 ‘귀함’을 구별하지 말자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글쓴이는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가 다투어 찾는 것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고려하면, 여기서 ‘소’와 ‘나비’의 이야기가 각각 ‘하찮음’과 ‘귀함’에 대응된다는 걸 추론할 수 있죠? 무엇이 ‘하찮음’이고 무엇이 ‘귀함’인지는 몰라도, 이들이 대비된다는 것 자체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선지와 비교하면, 확실히 주제와 가깝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결하든 핵심은 결국 ‘독해’였네요.</p>

현대시 독해 연습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쯤이 쳐.

‘구겨진 하늘’을 본 화자는 ‘묵은 얘기책’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돌담 울’이 둘러싸고 있는 ‘산기슭’이에요. 박쥐 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 오고 초가집에서는 ‘호롱불’을 켜는 저녁

시간인데, 화자는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묵화’라는 그림이 좀이 졌다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래된 추억인가 봐요.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핵심은 ‘저녁 산기슭’에서 ‘고향’의 옛추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본격적으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완전하지 못하듯, 화자도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처럼 회상을 하고 있어요. 먼저 ‘보리밭’에 나물을 캐러 갔다가 ‘종달새’ 소리에 관심이 끌려 ‘빈 바구니’로 돌아가기 ‘부끄러워’하는 ‘가시내’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중심이 되는 작품은 최대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넛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앞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계속해서 고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넛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앞내강’에 물이 불어나 ‘씨레나무’가 밀려 가는 상황입니다. ‘풍년’은 턱도 없고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난 모습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이’는 ‘뗏목’을 타고 항구로 가 돈을 벌러 보려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 ‘서릿발’이 불 정도가 돼도 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매나물→풍년→서리’라는 이미지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읽어낼 수도 있겠네요.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이렇게 가을에 ‘피로 가꾼 이삭’은 ‘참새’로 날아갑니다. 계속해서 암울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곰처럼 어린

놈’은 ‘북극’을 꿈꾸기도 합니다. 열악한 고향을 넘어 더 큰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늙은이’들은 그저 말싸움만 벌입니다. 화자는 이를 ‘싸우는 입김’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모로 갑갑한 고향의 상황이죠?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이육사, 「초가」-

이렇게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한겨울 밤’은 ‘강물’을 얼게 할 정도로 춥습니다. ‘좀이 친 묵화’로 표현된 고향의 암울한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었네요.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화자는 ‘북창’을 열어 ‘장거리’라는 속세의 공간을 등진 채, ‘산’을 향하여 앉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람’과 달리 변함없이 푸른 모습 때문이라고 해요.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이러한 ‘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너그러운 데다가 자랑 않는 겸허한 모습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산의 모습을 ‘평생’ 동안 보고 배우는 화자예요.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화자는 ‘산’의 품 안에서 자라나 다시 ‘산’으로 가 묻힐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즉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뻗쳐서 다리를 놓는 산의 모습이에요.

〈보기〉 확인

[보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 · 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지문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말문 트기'를 시도하는 작품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조금은 추상적이긴 한데, 대략적인 주제를 잡아둔 채로 한 번 읽어 봅시다.

지문 독해

“도대체 박준은 어쩌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트라우마'는 '박준'이라는 인물이 가진 '전깃불'에 대한 공포로 보입니다. '김 박사'와 '나'라는 인물이 '박준'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비밀을 찾는 것으로 보이네요. '나'의 이야기를 들은 '김 박사'는 '어젯밤' 발작에서 '전깃불'부터 연상된 공포감이 '박준'의 트라우마라는 추측을 합니다. '나'와 '김 박사'는 '박준'이 왜 이런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심리의 '근거'에 주목하고 있네요. 우리도 함께 궁금해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박준'은 왜 '전깃불'을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쩌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박준'의 소설을 통해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김 박사'는 소설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죠! '김 박사' 스스로 '마지막 방법'을 찾아 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소설을 굳이 보지 않아도 '박준'이 스스로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할 방법이 있으니 소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의 근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해요.

아니 그래서, ‘박준’이 가진 트라우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속 궁금해하면서 읽어봅시다.

(중략)

—이 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나’는 어떤 신문지 조각을 발견하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바로 ‘나’가 궁금해하는 ‘박준’의 이야기가 실려 있기 때문이죠! 괜히 우리도 신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금세 ‘실망’이 되고 만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왜 그러한지 생각해야 해요. 읽을 만한 곳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관심사가 나왔는데 읽을 게 별로 없다면, 당연히 ‘실망’이라는 심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저 신문지의 내용에서, ‘박준의 트라우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A]

아니나 다를까 ‘박준’의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전쟁 상황’과 관련된 것이었네요. ‘전깃불’ 아래서 경찰대인지 공비인지 모를 ‘사람들’에게 대답을 강요당하는 ‘절망적’인 상황. 여기서 얻은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누구라도 저런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길 만합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 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이청준, 「소문의 벽」—

그런데 그 뒤의 내용에서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준’은 ‘소설’을 쓰는 행위를 ‘자기 진술’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가져오면, ‘소설’을 쓰는 것이 ‘말문 트기’를 통한 치유 과정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기>와 엮을 수 있는 부분이 보이면 엮어 주는 방식으로 독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박준’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치유’의 과정이어야 하는 소설 작업이 마치 ‘전깃불 아래의 진술’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게 해야 하는데, ‘전깃불’ 아래에서 어떠한 대답을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자기 진술’로서의 ‘소설 작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이러한 트라우마를 느낀다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박준’이 느끼기에 그 질문은 어떠한 대답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네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위험한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준’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전깃불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5%	7%	5%	7%	6%

2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서 소설에 관심을 안 가진 것이지.
해설	‘김 박사’가 ‘박준’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는 것. 박준의 소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심리’를 보이는 ‘근거’였습니다. ‘심리의 근거’를 통한 내용 이해라는 태도만 있었다면 이 선지를 맞다고 판단하는데 0.76초 정도 걸렸겠네요.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언제 그랬냐.
해설	‘나’가 ‘김 박사’의 치료 방법을 신뢰했다는 ‘심리’가 등장한 적 없죠?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으니 이런 내용은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걸 알고 해결책을 ‘나’와 논의한 거잖아.
해설	‘발작’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김 박사’가 치료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문 내용과 정반대네요.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절망적이었던 거지.
해설	‘어머니’는 전깃불 아래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또 ‘심리의 근거’를 묻고 있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절망감’을 느낀 시점에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니,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도 허용할 수 없겠죠?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읽을 게 없어서 실망한 거잖아.
해설	‘나’가 실망했다는 ‘심리’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의 근거가 뭔가요? 그렇죠.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입니다. 궁금해하는 내용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전깃불의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이니 완벽하게 ‘나’가 궁금해하던 것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7%	76%	5%	7%

26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A]에 대해 물어 보고 있습니다. [A]는 '박준'이 가지고 있는 전깃불에 대한 공포의 이유를 밝혀주고, '소설'과 '기자의 질문'에 대한 '박준'의 생각이 나타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생각한 채로 선지 판단해 봅시다.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간의 의미를 언제 부각했냐.
해설	'우리 고향'이 배경이기는 한데, 그 공간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지는 않았죠? 이 지문 내용 상에서 [A]는 '전깃불에 대한 공포'가 핵심이지, 어떤 지역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한 건 말이 안 되지.
해설	객관적 시점이에요?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이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물의 성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소설의 모든 행위, 대사에서는 그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문학에서의 '성격'은 그 인물의 특징 자체를 드러낸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에요.

해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박준'의 어릴 적 경험, 그리고 현재의 소설 쓰기의 경험을 연관 짓고 있고, 거기서 사건의 의미(전깃불에 대한 공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허용할 수 있네요. 내용을 이해했다면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슨 헛소리야.
해설	[A] 부분은 '박준'의 시선만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건 허용하기 힘드네요. 나아가 이 경우 '박준'의 시각에서만 이 사건을 해석할 것이니,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는 것 역시 허용하기 어렵구요.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완전 헛소리네.
해설	일단 '박준'의 시선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시선'을 허용하기 어렵고, '역사적 사건의 전모'라는 엄청난 내용은 이 지문의 주제와 크게 벗어나죠? '개인'에 주목하느냐 '사회'에 주목하느냐라는 큰 틀의 주제 구분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6%	7%	5%	66%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① '전깃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일방적 진술 강요, 충분히 허용되네.